

작품 내용

제 목	별을 빌리는 법
내 용	친구의 글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다 내 밤에도 붙이면 길을 덜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별은 스티커가 아니어서 몰래 떼어 오면 친구의 밤에 작은 구멍이 난다 나는 별을 훔치지 않고 망원경을 만들었다 이 별은 민서의 글에서 왔어요 그렇게 적자 내 밤도 밝아지고 친구의 밤도 그대로였다 별의 주소를 적어 주는 일은 하늘을 나누는 법 빌린 빛도 제 이름을 잃지 않게 하는 법